

토론요지 2 : 주민자치 기반조성을 위한 주민(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

김필두 박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민자치’는 지역주민이 ‘내가 이 지역(혹은 동네)의 주인이다’ 라는 ‘주인의식’을 가지는 것이다. 주민이 지역사회(혹은 동네)의 주인의식을 가질 때, 그 지역(혹은 동네)는 보다 깨끗해지고, 보다 화목해 지고, 보다 살기 좋게 바뀌어질 것이다. ‘주민자치’를 통하여 주민은 일시적으로 지나치는 ‘손님’이 아니라 뿌리를 내리고 살아 갈 지역사회(혹은 동네)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주민자치’는 지역의 ‘주인’인 바로 내가 하여야 한다. 주민자치의 주체는 그 지역(혹은 동네)을 사랑하고 그 지역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될 수 있다. 어린이, 학생, 주부, 직장인, 노인, 저개발국에서 일 하러 온 외국인 등 모두가 될 수 있다. 한 국가의 국민이 될 수 있는 요건, 즉 국적을 가지는 것은 어렵지만, 지역사회의 주민으로 참여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다만, 얼마나 손님이 아닌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가 중요하다.

주민자치가 추구하여야 하는 궁극적인 비전과 목표는 ‘살기 좋은 마을을 주민들의 힘으로 만들기’이다. 우리 마을이 지금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높은 문화적 혜택을 누리고, 소외된 이웃이 없고, 주민간의 불화가 없고,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마을을 주민들의 힘으로 직접 만들어 가는 것이다.

주민은 권력을 지닌 정치가나 전문가들로부터 대변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이끌어가야 할 주체들이다. 그러나 그동안 다양한 주민참여 방법들은 대부분 소수 전문가나 전문화된 활동가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즉, 전문가 중심의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어, 주민들은 지역사회 활동 등에 있어 대상화되고 있다. 주민들이 주체가 되고 참여와 자치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자치는 주민들 집단 자치가 되어야 한다. 주민들 각자가 모두 자신의 이해만을 주장한다면 주민 스스로 자치 역량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

다. 주민자치에 대하여 비판적인 이들이 가장 쉽게 내놓는 근거가 '주민들의 자치 역량 부족'이다. 따라서 주민(주민자치위원)이 진정한 주민자치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를 담당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져야 한다.

주민자치는 '주민의(사람), 주민을 위한(사업), 주민에 의한(조직)' 직접적인 참여적 민주주의의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주민자치를 선도해 나가는 것이 주민자치위원이다. 따라서 주민자치가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일정수준 이상의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역량이 일정한 수준 이하일 경우, 이를 채워주기 위한 노력이 역량개발이다. 주민자치위원에게 필요한 역량은 주민자치에 대한 지식 역량, 의지 역량, 실천 역량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주민자치위원의 지식역량 개발방안

주민자치위원이 갖추어야 하는 지식역량은 일반적인 지식 역량과 실무에 관한 전문지식 역량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지식 역량으로는 첫째, 마을의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소양과 인격을 들 수 있다. 우선, 마을의 주인이자 어른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격과 소양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이해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과연 존경받는 마을의 주인이고 어른인가에 대한 자가 진단과 평가가 필요하며, 어떤 모습의 어른이 되겠다는 롤 모델을 설정하여 이를 자기의 것으로 하기 위한 연습과 학습을 하여야 한다.

둘째,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조직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마을과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조직에 대한 헌신, 다른 주민자치위원들과의 팀워크, 공무원과 일반 주민과의 상시적인 의사소통, 마을의 어른으로서의 문제나 갈등 해결 능력, 열린 마인드 형성을 위한 전략적 사고,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지속적인 자기학습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지식 역량 개발에는 마을 강좌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인문학은 삶의 지평을 넓혀 주고 인격 도야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마을 지도자로서의 리더십과 포용력을 강조하는 어른학 등도 유용하다.

전문지식 역량은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것들이다. 우선, 주민자치의 개념과 필

요성에 대하여 이해하여야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의진행기법과 문서작성법, 주민자치사업을 위한 체계적인 주민자치위원회 활동계획 수립, 마을경영을 위한 사업별 계획 월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것과 같은 주민자치와 관련된 실무적인 지식역량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서 담당 공무원과 함께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주민자치위원의 의지 역량 개발방안

주민자치위원의 의지 역량은 스스로의 판단과 생각으로 우리 마을을 좀 더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드는 일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나서겠다는 각오와 신념을 말한다. 이러한 의지를 키우기 위해서는 그러한 의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적절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주민자치사업에 헌신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첫째, 성공적인 주민자치사업이나 활동 사례를 견학하는 것이다. 우수한 사례를 견학하다 보면, 그 사례를 목표로 하여 우리도 한번 노력해 보자는 의욕과 의지가 생겨 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일본과 같이 자체적인 국내외 우수사례에 대한 견학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정기적인 견학을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주민자치위원의 위상을 높여 주는 것이다. 주민자치위원이 마을의 지도자이고 어른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 주기 위하여 현재 읍면동장이 위촉하던 것을 시군구청장으로 격상시키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 등 단체장과 정기적인 대화의 시간을 가져서 주민자치위원의 의견이 정책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주민자치사업에 대한 정기 주민보고의 개최가 필요하다. 주민자치위원회가 1년 동안 추진한 각종 주민자치활동성과를 매년 하반기에 주민총회를 소집하여 주민들에게 보고하는 한편 내년도 사업 계획도 함께 보고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민보고대회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자긍심을 높이는 동시에 책임감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주민보고대회를 마을축제로 개최하여 주민들의 화합과 교류의 장으로써 주민자치사업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주민자치사업 결과보고서의 발간이다. 주민자치위원회가 1년 동안 수행한 각종 주민자치사업을 자체평가하고 우수한 점, 미흡한 점, 개선해야 될 점 등을 제시하는 주민자치사업 결과보고서를 매년 발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주민자치사업과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에 대한 마을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다.

다섯째, 적절한 인센티브의 부여가 필요하다. 주민자치사업 평가대회나 마을 만들기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여 우수한 주민자치위원회나 위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는 것도 주민자치위원의 사기를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3) 주민자치위원의 실천역량 개발방안

주민자치사업은 현장에서의 실천을 전제로 하는 사업이다. 단순히 자문만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사업부서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와 차별화되지 않는다. 주민자치사업을 선정하기만 하고 집행을 공무원에게 미룬다면, 주민자치가 아니고 민원의 제기에서 끝나며, 지방의회와 차별화되지 않는다.

주민자치사업의 성공적이고 체계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첫째, 주민자치사업 매뉴얼의 작성이 필요하다. 매뉴얼은 1년 단위로 작성하되 월간, 주간을 단위로 주민자치위원이 해야 할 일을 표준적으로 제시하면 주민자치위원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사전에 알고 그 매뉴얼에 맞게 활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매뉴얼에는 기본적인 회의진행방법, 공문 등 행정서류 작성방법, 컴퓨터 등의 활용방법, 인사말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매뉴얼 작성은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고, 필요한 경우 시군구나 읍면동에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둘째, 주민자치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내의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의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 이러한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 내 학교, 종교단체, 주민단체, NGO 등의 도움이 필요하다. 각각의 단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 인력이나 자원봉사가 가능한 인력들을 사전에 확보하면 주민자치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 또한, 부족한 사업 예

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이들 단체 소속의 기업인, 직장인 등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모든 사업을 주민자치위원회가 단독으로 수행하기에는 전문성이나 행정실무능력의 측면에서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마을사업추진단”을 조직하여 추진하는 방법도 바람직하다. 또한, 전문성을 가진 단체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거나 기술적인 조언을 받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셋째, 지역내 다양한 단체와의 협력적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 시민단체, 직능단체와 연계하여 참여가 가능한 인력 자원을 제공하기도 하고 활동 재원 조달을 위한 공동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마을 축제를 개최하는 경우, 아파트 부녀회에서는 음식코너를 담당하고, 학부모회에서는 학생 백일장을 준비하며, 배드민턴 동호회에서는 체육행사를 주관하는 등 각각 단체나 조직의 특성에 맞는 역할을 부여하게 되면 행사가 보다 풍부해 지고 많은 주민의 참여가 가능해 지며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 질 것이다.